

자료제공 : 2023. 12. 2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가과

한강여가사업부장	이 예 림	02-3780-0868
수상여가과장	박 인 수	02-3780-0589
담 당 자	최 윤 정	02-3780-059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세빛섬' 최다 방문객, 영업이익 흑자 전환... 내년 상업광고로 수익개선 기대

- 코로나19 이후 옥상 전면개방 등 노력... 전년 대비 방문객 32% 증가, 수익 상승
- 이자 비용 약 55억 이상 절감하여 재정부담 감소, 경영 정상화 꾸준히 노력해 와
-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내년부터 세빛섬 대형 LED 전광판 설치돼 상업광고 가능
- 서울시, 공익 광고·미디어아트 등 송출 위해 운영사와 협의... 공공성·불거리 확보

-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이자 한강의 랜드마크인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그간의 다양한 전략과 노력으로 올해, 개장 이후 225만 명이라는 최다 방문객이 찾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서울시는 '20~'22년 적자였던 '세빛섬' 영업이익이 올해 4억여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수)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그간 상업광고가 어려웠던 세빛섬에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 재정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전시·공연 및 수상레저 등 복합 문화 시설인 '세빛섬'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한 사례로, 2011년 9월 준공돼 2014년 전면 개장됐다.

- 내년부터 시는 세빛섬 3개소(가빛섬, 채빛섬, 예빛섬) 외부에 LED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로 수입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자본잠식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자를 절반 이상(약 55억 원) 줄여 지출을 감소시켜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유입도 계속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자 코로나19 등 어려웠으나 경영정상화 노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흑자 전환>

- ‘세빛섬’은 당초 ’11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전임시장 취임(’11.10월) 후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로 ’11년 9월 준공 뒤 전면 개장까지 3년 가까이 지연돼 사실상 준공 초기 운영 정상화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운영비,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해 적자가 지속됐으며,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액도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다.

- 총사업비 1,390억 원(자기자본 429억 원, 대출 961억 원)으로 조성된 민간 투자 방식의 ‘세빛섬’은 운영 주체 (주)세빛섬과 서울시의 합의에 따라 2034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 그동안 ‘세빛섬’ 운영사는 금융기관 대출금(984억 원) 이자를 연간 약 100억에서 45억으로 절반 이상 줄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올해 3월, 주주사인 효성티앤씨·SH공사 등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고 (주)세빛섬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는 ‘대위변제’를 추진, ‘세빛섬’ 운영사는 은행에 고액의 이자 내지 않고 대위변제를 한 주주사에 저액 이자를 지불하게 돼 재정 부담을 줄였다.

- 또한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세빛섬 옥상 전면 개방·잡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32%(170만 명→225만 명) 대폭 증가, 세빛섬 개장 이후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매출액 또한 상승해 코로나19 기간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상업광고’ 가능해져… 세빛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지난 12.27.(수)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제도에 승인돼 내년부터는 세빛섬 3개소(가빛섬, 채빛섬, 예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천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떠 있는 배(부선)’인 세빛섬에는 상업광고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 (주)세빛섬은 임대수익 외 수익을 창출하고자 세빛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 등 콘텐츠 송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비스를 신청했고, 27일(수) 승인을 얻었다.
- 서울시는 새롭게 설치될 대형 LED 전광판에 공익 광고·시정 홍보 영상·캠페인 등을 송출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세빛섬’ 운영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개장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빛섬’이 다양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내년부터는 더 큰 흑자가 기대된다”며 “‘세빛섬’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